‘취업 걱정없는 동국대’ 역대급 취업박람회

9월 1~7일, 대기업 등 309곳 참가
단일대학 취업박람회로 최대 규모
자승 스님 발원 건학위 역점사업
“정례화 통해 학생 중심 교육 제공”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9월 1~7일 캠퍼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취업박람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개막식 모습.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에서 삼성전자부터 유수의 공기업, 불교언론, 사찰까지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동국대는 9월 1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2022 Energize Dongguk JOB & CAREER Update Festival’ (이하 취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박람회는 중앙도서관과 캠퍼스 일원에서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기아, 테슬라코리아 등 국내외 대기업부터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항공공사 등 공기업까지 309곳의 업체가 참여한다. 불교계에서도 BBS불교방송, 봉은사가 참가해 불교 인재 유치에 나선다. 이는 단일 대학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로는 최대 규모다.

동국대가 역대급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이하 건학위) 출범에 있다. 출범 당시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발원했고, 이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졌다.

실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통해 전액장학 프로그램인 ‘동국건학장학’과 지역 사찰이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신설됐으며, 학교 대표 장학 프로그램으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취업박람회는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대면 취업박람회 개최해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개막식 치사를 통해 “이번 취업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취업준비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바란다”며 “동국대 역시 과거 선각자들의 설립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세계 속 명문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지난해 4월 불교중흥과 동국발전을 목표로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했다. 건학위원회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어 불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토양을 다져왔다”며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의 첫 사업인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이 1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채용상담관’ △취업 전반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취업상담 부스’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상담’ △1대 1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이 진행된다.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과 퍼스널컬러 진단검사, 면접에 알맞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 면접 스타일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뤄진다.

동국대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람회 행사 기간을 2학기 개강에 맞춰 개최하며 단과대학별 명사 강연, 단과대학별 체육대회, 선후배 간담회, 연꽃제도 함께 열어 단순한 박람회가 아닌 축제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등록금 ·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의 발원에 따라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박람회의 정례화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암사 소유권 분쟁, 대화·소통 노력”

조계종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 대진 스님

8월 27일 천은사서 기자간담회
정통성 수호 위해 끝까지 최선
“물리적 행위 등 충돌 없을 것”



순천 선암사를 두고 수년간 이어진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쟁이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 대진 스님이 “선암사 분규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태고종 선암사측과 대화 · 소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태고종 선암사가 대화 · 타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종단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불교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만큼, 조계종 선암사가 물리적 행위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 대진 스님은 8월 27일 구례 천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암사 소유권 분쟁에 관한 공식입장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이날 선암사 소유권 분쟁의 핵심소송의 경과를 설명한데 이어, 지난 7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진 스님은 “사법부의 판단은 한국불교 정통성을 저해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판결일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해 온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계종 선암사는 대법원 상고에 이어, 판결문에 나타난 법리오인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럼에도 대진 스님은 선암사 분쟁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법적 소송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화합, 타협을 우선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태고종 선암사 역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규해소가 선암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례=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공공장소 內 종교, 부정 보단 공유”

불교사회연구소 8월 29일
‘세계 공공 성지’ 학술대회
양정연 교수 “종교 기회 제공”

“염주가 장식품일 수 있고 사찰의 일부 공간이 마음편한 산책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정연 한림대 교수〈사진〉는 불교사회연구소가 8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공공성지(公共聖地) 운영 현황과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야마나카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가 설명한 ‘가벼운 종교’ 개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국 대륙과 대만의 공공성지 현황과 종교 갈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한 양 교수는 사례 중 하나로 대만 타이페이 칠호공원에 있는 관음상 철거 논란을 들었다. 관음상 건립은 시정부의 허락을 받았지만 공원화 작업이 계획돼 있던 곳에 세워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철거와 유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종교성 영역이 아니라 예술문화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유 가치였다.

양 교수는 “예술문화에는 공동체 생활과 가치가 내포돼 있다”면서 “개인 신앙 표현이 금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종교계와 일반 시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들의 거듭된 공론의 장을 통해 교차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생각 범위에 갇혀 현실의 문제를 볼 때 우리와 공존하는 타자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배제돼 버리는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양 교수는 종교를 떠나 일상화 된 염주와 산책로를 예로 들며 “공공공간에서 논의되는 불교는 우리와 공간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맥락으로 수용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이젠 ‘생태 순환사회’로”

8월 31일, 탈성장 전환사회 등
새로운 20년 활동 계획 발표

올해로 출범 21주년을 맞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가 지속 가능한 ‘생태 순환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 31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20년을 향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사진〉

이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생태 순환사회’ 정착을 강조하며 △탈성장 전환사회운동 △녹색불교 운동 조직확대 △녹색지도력 발굴 양성 등 세가지 활동 방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성장시대는 위로 성공하는 삶을 지향했지만 성숙의 시대에는 옆으로 성공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부연하며 “돌봄과 환대, 협력, 상호부조, 공동체성 등 관계성이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생태 순환사회 운동 정착을 위해 조직 확장에 나선다. 먼저 2040년까지 1080개 사찰에서 녹색사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부도 8개로 확대, 지역조직 확대를 통한 사회 변화도 일으켜 낸다. 녹색지도력 발굴을 통한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스님과 재가자, 청소년, 활동가, 연구가 등 500여 명의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기후와 생태위기를 극복, 사회적으로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정길 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땅과 자원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의 입장까지 반영한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화쟁위원회, ‘평화로 가는 길, 화쟁’ 발간

불교대학 교과과정 활용 가능
화쟁 이해 · 갈등 해결 등 담겨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가 불자용 화쟁안내서 〈평화로 가는 길, 화쟁〉을 발간했다.

화쟁위원들이 사례를 모으고 직접 집필한 〈평화로 가는 길, 화쟁〉은 불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평화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대학(전문교육과정) 교재로 한 학기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총 3부 16장으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원효 스님의 화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갈등에 따른 화쟁의 기본원리를 7장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2부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결에 필요한 입장을 4장으로 나눠 설명한다. △3부는 갈등조정의 구체적 방법을 소개하고 갈등조정자 즉 화쟁법사로서의 역할을 안내한다.

갈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왜 생기며, 어떻게 진화해서 충돌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일상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풀어내는 실습을 통해 화쟁사상을 내면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dongguk UNIVERSITY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9위
학과(전공)의 장벽을 넘는 융합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2022.09.15.(목) 10:00 ~ 09.17.(토) 17:00
동국대학교 특성화 분야
불교&문화예술 — 불교 및 불교융합, 문학, 연극, 영화영상
Safety&Security — 재난방지, 식품안전, 치안, 범죄, 정보보호
바이오&메디 — 의생명과학, 한의학, 약학 및 BT, 신약,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D.N.A+α — Big Data, Network(IoT, Cloud), A.I,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기술 분야